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LINK) 토론회

이주민 공공의료통역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22.12.22.(목) 14:00~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

주관 / (사)이주민과함께 부설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LINK)

주최 / (사)이주민과함께, 부산대학교병원

프로그램

- 일시 : 2022년 12월 22일(목) 14:00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
- 세부프로그램 :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	사회 : 아이잔 사)이주민과 함께 의료팀장 개회사: 정지숙 (사)이주민과 함께 상임이사 축 사: 이종진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 정성운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직무대행
14:10~14:30	발제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의료통역 활동성과와 과제 - 김나현,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센터장
14:30~15:50	지정 토론	좌장 : 김창훈 부산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1. 이주민 의료와 건강권 측면에서 본 의료통역 시스템 - 김재동,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원 2. 코로나19가 남긴 교훈 :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3. 이주민 공공의료통역의 제도화를 위한 부산시 과제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국장
		종합토론
15:50~16:00	폐회	

목 차

발	제. 부산시 공공의료통역 성과와 과제 / 김나현,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센터장1
토	론. 이주민 의료와 건강권 측면에서 본 의료통번역 시스템 / 김재동,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원13
토	론. 코로나19가 남긴 교훈: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17
토	론. 이주민 공공의료통역의 제도화를 위한 부산시 과제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21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지숙 (사)이주민과 함께 상임이사

생명을 지키며 건강하게 사는 것, 인간답게 살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이주민과 함께가 이주민의 여러 인권과제 중 건강권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활동하는 이유이며 부산대학교병원이 의료전문 통번역활동가를 양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를 힘껏 지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사)이주민과 함께는 건강보험이 없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을 위해 의료인들과 함께 무료진료소를 열고, 뜻 있는 병원과 MOU를 맺어 재양수준의 의료비를 감면하고, 환자와 병원 사이에서 원활하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고 소통하는 의료통역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며 부산만이 가진 강점이 바로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의 존재입니다. 링크 통번역활동가들은 단지 통역자를 넘어 아픈 이주민 환자들의 보호자이자 상담사, 복지사 역할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헌신성이 부산은 적어도 말이 안 통해 치료받을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의료통번역활동가 양성교육과 전문화를 위한 의료코디네이터 과정을 진행하고 사업을 갈무리할 즈음엔 성과를 공유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 아홉 번째이며 올해 주제는 “이주민 공공의료 통역 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공의료에서 소외된 이주민의 건강안전망과 통번역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왔습니다. 이주민 통번역활동의 체계화와 공공의료의 제도화를 향해 작지만 의미 있는 성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민 의료통역지원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함으로써 공들여 키워온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의 시스템 또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의료통역예산 삭감은 링크 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공공의료에도 위협요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사)이주민과 함께를 비롯한 이주민단체 및 기관들, 지역사회 NGO와 의료인들이 지혜를 모아 주시길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토론회 발제와 실무까지 어깨가 무거웠을 김나현 센터장님, 토론에 참여하신 김창훈 실장님, 이한숙 소장님, 김경일 국장님, 김재동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발제. 부산시 공공의료통역 성과와 과제

김나현,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센터장

발제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의료통역
활동성과와 과제

김나현, (사)이주민과 함께 부설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센터장

I. 이주민 현황

1. 국내 이주민 현황

최근 10년간 국내 외국인주민은 매년 증가하여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2,134,569명을 넘어섰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의 비율도 매년 증가하여 2012년 2.8%에서 2021년 4.1%로 증가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향후 5년 내 이주민이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이민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변수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인데 지속적 상승세로 인해 외국인주민이 최대치로 집계된 2019년을 기점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출입국의 어려움과 이민유입 매력의 감소로 인해 주춤한 상태다.

<표1> 연도별 체류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연도	2012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구분					
외국인주민	1,409,577	1,861,084	2,216,612	2,156,417	2,134,569
총인구	50,734,284	51,422,507	51,779,203	51,829,023	51,662,290
인구대비(%)	2.8%	3.6%	4.3%	4.2%	4.1%

자료: 행정안전부(2021)

2. 부산시 이주민 현황

2021년 11월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이주민은 72,361명으로 부산시 총 인구 대비 2.1%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 대비 7.19%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지속적 증가 추세로 볼 수 있다. 2021년 12월말 기준 부산시 거주

이주민은 72,361명으로 부산시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 거주 이주민은 국내 체류 이주민 총수의 3.9%에 해당된다.

〈표2〉 부산시 연도별 체류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2012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부산거주외국인주민	49,329	64,145	77,968	73,185	72,361
부산시 인구	3,550,000	3,440,000	3,395,000	3,373,000	3,324,000
인구대비(%)	1.4%	1.9%	2.3%	2.2%	2.1%

자료: 행정안전부(2021)

부산시 거주 이주민 72,361명 중 국적취득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 14,040명(19.4%) 가장 많고, 외국인주민자녀가 12,327명(17%), 이주노동자가 11,811명(16.3%), 유학생이 11,317명(15.6%), 외국국적동포가 4,219명(5.8%), 기타외국인이 18,647명(26%)으로 타 도시 대비 외국국적 동포 비율이 낮고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표3〉 2021년 부산시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소계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전국	2,134,569	1,649,967	395,175	174,632	156,607	368,581	554,972	210,880	273,722
부산시	72,361	53,334	11,811	7,340	11,317	4,219	18,647	6,700	12,327
비율	3.4%	3.2%	3%	4.2%	7.2%	1.1%	3.6%	3.2%	4.5%

자료: 행정안전부(2021)

3. 부산시 이주민 현황을 통해 본 <이주민 통번역센터 링크>의 중요성

부산시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조사¹⁾ 부산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부산의 이주민들이 느끼는 부산생활의 불편함 1순위는 의사소통(40.9%)문제이며 특히 병원 등 의

1) 연구보고서 2020-16 부산지역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조사. 2020.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료기관에서의 의사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동일한 조사에서 부산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살펴보면, ‘외국어 가능 의료진부족’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또한 ‘의사소통 문제’가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2016년과 비교하여 생활 속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56.9%에서 2020년 45.9%로 11% 감소한 점이다. <이주민과 함께>의 부산시 이주민 통번역시스템 구축 요구와 부산시의 통번역지원 예산 확대가 이러한 조금씩 성과를 보이는 게 아닌가 추측해본다.²⁾ 실제로 김해와 양산은 물론이고 경주, 대구, 울산 지역에서도 심각한 질병이나 통역자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이주민과 함께>와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를 찾는 등 이주민과 이주민 지원단체 등에 부산은 이주민이 병원 이용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다. 이는 링크가 지난 10년 부산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꾸준히 이주민 통번역자를 양성하고 실력을 키워온 것과 2019년 이후 3년간 부산시의 ‘의료통역지원사업’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여가 있어 가능했다.

부산시의 생산 가능 인구 확보라는 과제와 원도심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체류권 부여 등 이주민을 유입, 유치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볼 때 향후 이주민 인구 비율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한풀 꺾인 데다 최근 한국이 이주 유입국으로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과³⁾, 인구 절벽에 직면한 각 지자체들이 양질의 생산, 소비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감안하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부산이 직면한 초고령화와 출생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상황에서 선택지는 명료해 보인다. 부산이 이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류지 선택의 조건 등을 감안해보면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의 시민적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함께 도모하는 링크의 활동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II.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가 걸어온 길

2010년부터 4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을 신청하여 언어통·번역센터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사례조사를 위해 전국 이주민 통·번역 시스템이나 사업을 하고 있

2) 차기 부산지역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조사에서는 부산시의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만족도 및 필요성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한 정책 효용성을 알아보면 좋겠다.

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42653> 한국경제. OECD 최저 '이민 불모지' 전략"...한국행 발길 끊은 외국인

는 단체와 기관을 방문하고, 해외 사례 조사를 위해 통·번역 시스템이 잘 갖춘 일 본을 다녀왔다. 이후 민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주민 통·번역 서비스 지원방안 을 모색하고 지금 이주민 통·번역시스템의 기초를 만들었다.

2013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통·번역활동가 양성해왔다. 부산대병원이 마중물이 되어 주었고 독일재분배재단과 한국여성재단 등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공헌과 자기 성장에 관심있는 민간의 재단이 도움을 주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통역 지원사업은 2012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가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여 시작했으며 2019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6개 외 부산지역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소, 이주민 무료진료소에 통역지원이 가능해졌다. 2020년은 예산이 8,000만 원으로 늘어나며 대상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서 외국인주민 전체로 확대되었고 동행 통역 파견 외 공공병원에 고정통역을 배치하게 되었다. 2021년 예산이 1억 원을 증 액되었으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통역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미 10월에 예 산이 조기 소진되어 예산 규모가 재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정되지 못했다. 2023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통역 지원사업’ 예산은 5,000만 원으로 큰 폭 삭감 되었으며, 지금까지 행정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되며 ‘외국인 근 로자 등 의료통역 지원사업’을 예년과 같이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Ⅲ.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의료통역 활동성과

<부산·경남 이주민 통·번역 지원사업>은 이중언어에 능통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통·번역자를 모집하고 교육하여 500여명의 통·번역활동가를 배출했고, 현재 18개 언어 60여명의 이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의료통역에 있어서는 ‘이주민 공공 의료통역 전문교육’을 10여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영역을 구축했 고 이러한 시스템이 있었기에 공공의료통역을 더 폭넓게 이주민 통역지원을 가능했 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이주민의 방역·격리·치료·백신접종 등이 원활하게 이루 어질 수 있었다.

1. 연도별 의료통역지원사업

<표4>

[단위:건,%]

구분	합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총합계	16,152	3,627	3,607	2,413	1,973	902	853	706	753	737	581
의료통역	14,527	3,546	3,561	2,224	1,931	862	713	599	390	423	278
기타통번역	1,625	81	46	189	42	40	140	107	363	314	303
의료통역비율	90	97.7	98.7	92.2	97.9	95.5	83.5	85	51.8	57.4	47.8

연도별 의료통역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581건 중 의료통역이 278건(47.8%), 기타통역이 303건(52.2%) 지원하였다면 10년이 지난 2022년 11월말 기준은 3,627건 중 의료통역이 3,546건(97.7%)으로 압도적이다.(기타통역 81건, 2.3%)

2010년 초 부산시 통번역센터 설립의 전단계로 이주민들의 필요와 요구가 가장 크고 공공성이 높은 의료통번역센터 설립을 부산시에 제안했으며 실제로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안에 이주민 인권증진 세부추진계획으로 ‘공공의료 이주민 통번역 지원센터 설치’가 포함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2. 파견처별 의료통역지원현황

<표5>

[단위:건,%]

구분	합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부산의료원	7,999	2,542	2,168	1,186	1,000	223	241	168	185	188	98
부산대병원	2,054	273	391	282	447	238	154	134	72	41	22
무료진료소	1,850	294	348	312	186	176	152	140	114	64	64
가족보건의원	400	23	98	125	77	21	29	21	6	-	-
대동병원	258	36	88	54	31	29	20	-	-	-	-
에디스여성병원	169	90	29	7	1	20	2	13	7	-	-
순여성병원	156	39	39	33	30	14	-	1	-	-	-
개금백병원	94	41	-	13	7	5	-	3	6	9	10
기타	3,172	289	446	401	194	176	255	226	363	435	387
총합계	16,152	3,627	3,607	2,413	1,973	902	853	706	753	737	581

과전처 별 이주민 통·번역지원현황 살펴보면, 의료통역서비스를 이용한 이주민들이 부산의료원 7,999건, 부산대병원 2,054건, 이주민무료진료소 1,850건, 가족보건의원 400건, 대동병원 258건 등 순으로 이용하고 있다. 2019년부터 부산의료원과 부산대학교병원에 주요 언어권 이주민 통·번역활동가를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의료통역은 물론 접수부터 수납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함으로써 이주민 환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례를 통해 의료통역이 이주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례1: 딸이 안 통해서 생긴 생명에 위협한 문제

-2019년 9월 초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일주일 전부터 복통이 있었음. 참다가 금요일 에는 너무 아파서 동네병원에 갔었다고 함.

-초음파결과에 ‘급성맹장염’ 이니 큰 병원에 가라고 진료의뢰서를 썼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던 것임. 기숙사에 가서 또 아픔을 참다가 결국 친구를 통해 이주민무료진료소를 알게 되고 주말인 일요일에 방문한 것임. 의사선생님이 진료의뢰서 보고 매우 급한 상황이라고 알리자 그날 이주민무료진료소에 활동 중인 베트남어 통역활동가와 동행하여 부산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바로 수술을 했음.

사례2: 암과 투쟁한 중국 이주노동자

- 2022년 1월 말경 얼굴 비대칭으로 보여 대동병원 방문하다 ‘갑상선 림프암’ 발 견. 부산의료원 방문하여 CT 검사, 조직 검사한 후 부산대병원 외과/이비인후과 방문하여 한달 뒤 수술 날짜 잡음.

- 수술 후 2년 동안 약물복용과 방사선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상황을 지켜 봐야함. 현재 혼자서 지내며 일도 하면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고 있음

사례3: 암과 싸우다 사늘한 시체로 안치실에 갇힌 이주노동자

- 2022년 9월 말경 부산의료원에 내원한 중국 이주노동자가 뒤늦게 간암 3기말 발견하였고, 게다가 당뇨도 있어서, 수술은 해도 희망적이지 않음을 의사 소견이었지 만 환자는 조금이라도 살 희망을 하고 싶어서 ‘특수 서약서’ 까지 써가며 수술을 진행하였음. 의사선생님은 예상보다 수술 결과가 매우 좋았다함

- 이틀 동안 회복실에 있으면서 통역활동가와 희망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환한 미소로 지내고 있었음. 회복 속도가 갑자기 더디면서 환자의 건강상태가 나빠졌음. 좋아 지지 않은 환자의 상태보고 의사가 ‘사망 선고’ 해야 한다고 밤중 통역활동가에게 연락함. 통역활동가는 밤중에 전화 받고 곧바로 병원에 방문함. 중국에 있는 아들과 영상통화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시킴
- 사망자 자녀가 입국하여 관련 절차를 밟고 10월 24일 화장하였음

사례4: 일상생활에는 의사소통이 문제없지만 의료관련 내용과 용어가 어려워 곤란을 겪은 베트남 이주노동자

- 평소 한국어로 대화한 것이 불편이 없었으며, 한날 복통 및 설사가 잦아 통역 없이 병원에 방문하여, 대장내시경 예약날짜를 잡고 병원에서 준 몇 가지 약과 함께 귀가함. 약속된 내시경 날짜에 병원방문하여 내시경을 시작하면서 원래 비워야한 위와 장은 그대로 음식물 등이 남아 결국 대장내시경 하지 못하여 다른 날에 통역과 함께 내원해야 했음.

3. 통·번역활동가 양성 및 관리

〈표6〉 연도별 통·번역활동가 양성현황 [단위:연/명]

합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505	93	91	22	51	37	24	30	28	27	102

링크의 활동성과는 통번역 활동가 조직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주민의 의사소통권 확보’ 라는 기본 가치 외에도 링크가 목표했던 것은 이주민 당사자가 이주민을 돕고, 교육과 활동을 통해서 전문 통역사로서의 능력을 향상하면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이에 기반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내용을 만들어냈다. 2011년부터 2016년도에는 <통·번역 활동가 기본교육>을 결혼이민자 가족상담, 의료, 산재, 노동문제 전체를 포괄하여 연 2회씩 진행하였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부산대학병원과 협력사업으로 <이주민 공공의료통역 전문교육>을 진행하게 되었고, 매년 1회, 의료에 중점을 두고 의학, 이주민 의료정책 및 이주민과 사회복지제도 등 강의를 60시간, 병원 실습 30시간, 자원봉사 10시간을 이수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통·번역 활동가를 양성하면서 링크에서는 단순히 통역 역할만 아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의료통역 코디네이터 배출 목표를 두고 2019년부터 <이주민 공공의료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연 1회 추가로 진행하였다.

2020년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을 실시 못하자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교육 진행의 장점은 장소에 제약이 없는 것으로 어느 지역에서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좋다고 평가해준 교육생도 있다. 농촌지역에 사는 어느 이주민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어디에 가서 받은 줄을 몰라, 웹포스터를 보고 신청하여 기초의학과 통·번역의 기술 등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2011년부터 진행한 통번역활동가 양성 교육을 통해 약 505명을 배출했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독일 재분배 재단, 부산대학교 병원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다.

링크 소속 통·번역 활동가는 월 1회를 회의를 통해 그달의 활동하면서 통역 시 애로사항이라든지 새로 발표된 이주민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을 공유하면서 링크 사무국과 통·번역 활동가들과 조직적 관계를 형성한다. 활동하면서 통·번역 활동가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있다. 예를 들어 발화자들 간 권력의 비 대칭한 상황(의사와 환자), 병원 원무과 직원들의 부정적인 태도, 심하게 아픈 사람, 보고만 있고 자신의 힘으로 도와줄 수 없을 때 (이주민이 중병 때문에 병원비 많이 나왔고 이에 방법이 없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다. 통·번역 활동가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링크에서는 최근 해마다 외부 전문가를 모셔 <통·번역 활동가 마음 건강 워크숍>을 실시해왔다. 공공서비스 통·번역 활동가 양성교육과 그들이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마음 돌봄이 필요하며 이 또한 링크의 주요 역할이다.

2022년 11월경 링크 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한 이주민 당사자 100명을 <통·번역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96%이상은 통·번역 서비스에 만족했다며 100% 모두 통·번역 서비스를 재의뢰할 것 밝혔다.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 요약한 것이며, 이주민들에게 통·번역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알 수 있고, 또한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가 가진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1. 링크 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한 이주민의 연령대							
연령대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총합계	100	-	24	41	24	11	-
2. 링크 통·번역 서비스 이용 횟수							
횟수	합계	1회	2~5회	5회이상	10회이상		
총합계	100	25	39	12	24		
3. 통·번역활동가 전문성이나 정확성에 만족하십니까?							
구분	합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총합계	100	97	3				
4. 통·번역활동가의 태도에 만족하십니까?							
구분	합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총합계	100	96	4				
5. 추후 통·번역서비스를 재의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합계	매우 그렇다	그럴 것이다	생각해 볼 것	의뢰하지 않을 것		
총합계	100	100					
6. 링크의 통·번역 서비스에 대한 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주관식)							
- 따뜻한 배려,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이 매우 좋습니다. 통역이 있어서 미등록 이주민에게 병원비감면 등도 받아서 감사합니다. 통역사도 매우 열정적입니다. 100점에 100점, 열정적이고 친절하며 편안함, 시간을 잘 지킴. 수준이 높은 통역의 능력, 통역사가 있어서 안심이고 병원이용하는데에 편안함. 태도가 좋고 진심으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 통역사에게 감사함. 친절하고 왕진(통역활동가 이름) 진짜 짱요.							
7. 링크의 통·번역 서비스에 대한 불편했던 점,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주관식)							
- 통역사가 바빠다. 통역사 인원이 적다. 통역인원이 적어서 바빠다. 예약하기가 번거롭다.							

4. <이주민 통번역센터 링크>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들

가. 2010년부터 통번역 체계 구축을 위한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와 여러 이주민단체, 시민단체, 의료기관 등은 잘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이주민들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통역을 지원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나. 부산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적어도 아플 때 참지 않고 병원에 방문할 때 의료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사소통 부재와 미흡으로 인해 피해예방에 기여하였다.

다.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는 체계적으로 통·번역 활동가들을 끊임없이 발굴과 관리하여 그들을 성장시키는 데에 큰 성과였다. 단순한 통역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통·번역활동가들은 통역하면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링크와 함께 개입하여 적절한 절차를 취해 병원비 감면이나 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해왔다. 또 다른 영역의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주민 관련 단체나 공공기관 연계하는 역할까지 하여 이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예방하였다. 또한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무료진료소와 녹산 이주민무료진료소는 통·번역활동가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것인데 통·번역 예산이 다 소모돼도 운영이 가능한 것은 바로 통·번역활동가들이 통역료 안 받고 매주 일요일에 와서 자원활동한 것이었다.

마. 2019년 3월부터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에 통·번역활동가들을 상시로 배치되어서 병원이용한 이주민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은 성과라 볼 수 있다. 1년 정도 운영하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부산대병원에 통·번역활동가들을 상시 배치를 중단하게 되었다. 부산의료원은 고정 통·번역활동가들을 상시 배치하며, 2022년 7월경 통·번역활동가들의 사무 공간까지 마련된 상태이다.

바. 지금까지 활동해온 경험과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활동하는 통·번역 활동가들이 있어서 2020년 전 세계를 휘둘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링크에서 빠른 판단으로 통·번역 활동가들과 함께 움직여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을 14개 언어로 번역하여 이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후 ‘공적 공급 마스크’, ‘코로나 생활비 지원 안내’, ‘생활 방역지침’,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및 예진표’ 등의 문서를 16개 언어로 번역하여 이주민들에게 배포했다.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해외입국자가격리,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 다 언어 통역 활동가들을 투입하였다. 낮과 밤 구별하지 않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활동이 가능한 통번역 활동가들이 있어서 코로나19 방역에 큰 기여 하였다. 또한 각 공공기관과 잘 소통하여 코로나19 관련 통·번역을 지체없이 진행한 것이 성과였다.

이주민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부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링크는 앞으로 재난 상황 등이 발생 시 업무를 서로 잘 협력하여 이주민들에게 정보제공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12월 초 ‘업무협약’ 을 맺었다.

Ⅲ. 이주민 의료통역지원사업의 도전과 과제

이주민의료통역지원의 제도화 노력은 2012년 부산시의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의 부대사업 형식인 의료통역지원사업에서 출발했다. 500만원의 턱없이 적은 예산이었지만 ‘있다는 것’ 이 중요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진료를 거절당하거나 통역자를 개인이 수소문해서 동행해야하는 어려움에 놓인 이주민들에게 의사소통권은 공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정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10년, 부산대학교 병원을 비롯하여 민간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이주민 통번역활동가를 발굴하여 의료코디네이터로 전문성을 갖도록 교육하고 각 병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의료통역 생태계를 만드는 한편, 의료통역지원이 필요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산시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규모를 키웠다. 2019년부터 4년간은 계속 성장하며 이주민의료통역지원센터를 향한 토대를 만드는 과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부산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사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당연히 제도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없음으로, 민간에서 안간힘을 써서 구축한 공공의료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명료하다. 기반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부산시 의료통역 지원사업은 명시적 사업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을 보조하는 ‘사무관리비’ 로 편성되어 애초에 예산항목이 맞지 않았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늘었으나 통역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실비 외 통역의뢰 접수, 통역자 섭외 및 파견, 통역비 청구 등 행정예 필요한 전담직원 인건비가 없어 어려움이 컸고 홍보비, 교육비 등 운영비조차 없었다. 부산시에 사업의 성격에 맞는 예산 항목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청을 3년 동안 꾸준히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예산실에서 이 예산이 통째로 날아가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5,000만원 통역예산이 책정되었지만 공공의료 담당부서인 보건위생과가 아닌 이주민 담당부서인 여성가족

과에 편성되어 본래의 의료통역지원사업은 사라진 상황이다. 예산 50% 삭감도 문제다. 부산의료원 고정통역 파견 및 한해 4,000건의 의료통역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부산시에 이주민 통합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도 일조했다. 주무부서는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지만 노동, 인권,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등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전 영역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부서간 칸막이를 넘나드는 유연한 행정인데 아쉬움이 크다. 부산시의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는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산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및 의료검진 지원사업, 외국인주민 무료투약사업 및 의료통역 지원사업 등 외국인주민 의료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보건위생과가 주관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는 이주민 통역지원이므로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성가족과는 의료와 관련된 전문영역이므로 보건위생과 업무라는 입장이다. 이 공방이 해결되지 않은 채 3년을 끌어오다 결국 2023년 사업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⁴⁾

‘이주민 의료통번역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당면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민간위탁사업이던 보조금 사업이던 예산 항목에 맞게 사업비를 편성하여 의료통역지원사업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 둘째, 부산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공공의료 이주민 통번역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는 어느 한 법인의 부설기관을 넘어 이주민과 의료기관, 부산시의 공공자산이다. 그동안의 성과가 무색하게 현재 이주민 의료통역지원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시점에 놓여있다. 공들여 만든 10년의 자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

4) 부서를 옮겨 5,000만원 통역지원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의료통역지원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토론. 이주민 의료와 건강권 측면에서 본
의료통역 시스템**

김재동,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원

이주민 의료와 건강권 측면에서 본 의료통역 시스템

김재동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원

1. 이주민과 건강권

국내 장·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3.9%이며, 이주민 여성은 약 90만9천명으로 2009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하였고 이주의 목적은 결혼이민 이외 유학생, 동포 등 다양해졌음.

이주민의 대다수는 의사소통의 제약,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 정보 접근성, 열악한 노동 조건과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해 건강권은 취약한 상황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이외 건강지원사업은 부재한 실정임.

이주민 여성 대상의 건강지원 정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이 있으며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미수급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발생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거주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의 책무조항 등을 구성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민의 지원에 한계가 있음.

부산광역시는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외국인 주민 통·번역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하며, 외국인 주민의 언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공서, 병원 등 이용 시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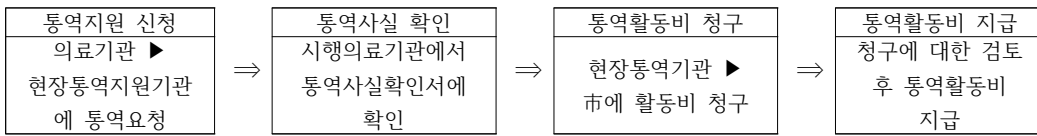
2.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통·번역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부산광역시는 외국인주민 통·번역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하며, 외국인 주민의 언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공서, 병원 등 이용 시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본 사업은 100% 지방비 투입 자체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예산 증액을 통해 매년 약 1,000건 이상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목적
 -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의료통역 사업을 추진,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한 삶 보장에 기여
- 과제내용
 - 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 내용 : 의료기관 및 이주민 무료진료소 등 방문 시 의료통역 서비스 지원
 - 지원기관 : (사)이주민과 함께(부산 이주민 통·번역센터 링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부산광역시 ⇒ (사) 이주민과 함께(부산 이주민 통·번역센터 링크)
 - 추진절차



- 예산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증감율(%)	비고
예산(단위:백만원)	10	50	80	100	10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비	광역시·도비	10	50	80	100	-	
	시·군·구비						
기타							

- 통역언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16개 언어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18	외국인주민 통번역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의 언어불편해소 및 정착지원	통번역 서비스 제공 건수	670건	1,172건	전년실적 및 예산규모
'19	외국인주민 통번역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의 언어불편해소 및 정착지원	통번역 서비스 제공 건수	900건	837건	
'20	외국인주민 통번역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의 언어불편해소 및 정착지원	통번역 서비스 제공 건수	900건	1,568건	
'21	외국인주민 통번역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의 언어불편해소 및 정착지원	통번역 서비스 제공 건수	900건	1,786건	
'22	외국인주민 통번역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의 언어불편해소 및 정착지원	통번역 서비스 제공 건수	1,000건	-	

자료: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①

3. 2021년 부산·경남 이주민 여성의 건강권 강화방안 모색연구-의사소통의 어려움 중심

연구의 목적은 이주민 여성의 생애과정별 건강문제와 의료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충족 의료를 파악하여 건강권 강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음.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이주민 여성 현황을 조사하고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정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함, 이주민 기관·단체 실무자 및 이주민 여성의 심층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의료이용 과정에 발생하는 미충족 의료를 조사하였으며 문제점에 기초한 정책을 제안함.

조사결과¹⁾ 임신 및 출산 또는 아기의 선천성 질환과 같이 여성 이주민의 국한되는 건강문제에 있어서도 의료진과의 소통의 어려움, 진료비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가 달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 전반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나타남.

<표> 이주민 여성의 의료기관 이용 단계에 따른 문제(의사소통 문제)

구분	발생하는 문제점
의료기관 이용 전 단계	- 의료기관 선택의 어려움(병원, 진료과 등) - 예약과정부터 어려움 발생(접수서류, 문진표 작성 등)
의료기관 이용단계	- 병원진료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 통역사 부재 시 진료 어려움 - 진료 중 의료진과 소통한계 발생
의료기관 이용 후 단계	- 외국어로 된 건강관리 정보 부재(복약, 식습관, 운동 등)

이러한 문제는 부산뿐 아니라 타 시도의 이주민 기관·단체의 실무자들이 유사사례가 많으며 미충족 의료에 발생원인이 되는 의사소통의 한계는 이주민 여성뿐 아니라 이주민 전체의 문제임을 제시함.

건강상의 문제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의료기관을 찾는 과정,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등 의사소통이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게 있으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역지원을 포함한 언어지원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1)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수행하였으며 부산·경남에 거주하는 이주민여성 30명을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함.

3. 앞으로의 과제 -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 확대 필요

심층조사 결과 진료 과정 전반에 발생하는 미충족 의료의 발생 원인은 언어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며 통·번역 지원사업의 확대와 같이 체계적인 정책의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함.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는 질병에 관한 정보를 찾거나 의료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진료과정에도 의료진과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함. 특히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의료이용 과정 전반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부산광역시의 경우 이주민 통·번역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통·번역 활동가 양성 및 부산의료원에 상주 통·번역 활동가를 배치하였음. 통번역 활동가는 의료기관 동행을 통해 의료이용 전반의 프로세스에 통역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 코디네이터 역할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생활치료센터 입소, 예방접종에 관한 업무도 수행함. 건강문제를 가진 이주민 최초 상담 시 상담 기록지를 작성하며 건강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여 이후 자체 통계도 생성함.

이주민 통·번역 사업의 예산은 2018년 1천만으로 시작하여 2022년에는 1억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2023년 예산삭감되어 5천만원 사업비가 편성되었음. 외국인주민 의료 통·번역지원 서비스 제공 실적이 매년 1,000건을 넘기 때문에 예산삭감은 이후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이주민의 미충족 의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어의 장벽이며 현재 수행되고 있는 통·번역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증액되어야 함.

예산에는 병원동행 시 통역서비스 외에도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 운영 비용, 수행하는 기관·단체 운영비, 활동가의 인건비, 홍보비 등도 포함하여 예산이 포함되어야 함.

참고문헌

김창훈, 부산·경남 이주민 여성의 건강권 강화방안 모색 연구, 부산광역시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2021.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①_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202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2022.

토론. 코로나19가 남긴 교훈: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코로나19가 남긴 교훈 :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이한숙(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 보장에 필수적인 통번역 서비스

다른 조건이 다 갖추어지더라도 의료진과 소통할 수 없다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변호하기 어렵다. 사회보장의 권리가 있어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이를 누리기 어렵다.

맹장염 진단을 받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진단서를 들고 무료진료소를 다시 찾은 환자,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를 구분하지 못한 통역인의 오역으로 구치소에서 자해를 시도한 피의자, 난민심사 과정에 악의적이고 왜곡된 통번역으로 피해를 입은 난민신청자들, 체류 정책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브로커에게 속아 많은 돈을 날린 이주민... 이런 사례들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많은 경우에 다른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보여준다.

안전과 방역을 위협한 정보와 의사소통 제약

그러나 아직 통번역 서비스는 이주민에게 필수적 권리로 인정되기보다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으면 좀 불편한 편의 제공 정도로 여겨져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이주민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았다. 그러나 특히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정보와 의사소통 제약은 이주민 당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대응에 공백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다. 한국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이를 절실히 경험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은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었지만 이주민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받는 공식적 정보의 부족 속에서 더욱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2020년 1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예방수칙은 영어, 중국어로만 배포되었고, 2월부터 안전안내 문자가 확진자 동선과 방역정책을 썰서 없이 실어날랐지만, 일부 내용만 영어, 중국어로 전송되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정례브리핑 자막 서비스는 일부 내용만 영어로 제공되었다. 다언어 정보 제공 부족이 이주민의 안전뿐 아니라 방역에서도 허점을 가져온다는 문제제기에 3월, 정부는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등을 통해 다국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거리두기와 방역정책, 지원정책에

대한 다언어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체류 정책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백신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은 한국어로만 운용되었다. 접종 예약 후 발송되는 안내문자, 이상반응과 건강상태 확인 문자도 모두 한국어로만 전송되었다. 접종 예약은 보건소와 구군별 콜센터에 전화로도 할 수 있었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들은 본인들이 직접 예약을 할 수 없었다. 이주민들은 특히 시급성을 요하는 정보에 시의적절하게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연령별 예약기간을 놓치거나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 계획이 변경될 때 혼란을 겪었다.

이주민 커뮤니티 내에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에서는 확진자와 접촉자의 대응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보건소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아도 소통이 어렵거나, 격리나 치료시설에 가서도 소통 문제로 쌍방이 어려움을 겪거나, 집에서 격리하는 동안 온라인 주문을 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에게 생필품조차 제때 전달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격리된다고 하니까 중요한 물품은 다 가지고 가서 소각하는 줄도 모르고 맡겨서 여권이 소각되어 버리고 격리해제될 때 입고 나올 옷조차 없었던 사례들도 있었다.

다시 돌이켜 보면 혼돈 그 자체인 상황인데, 통번역 역량을 갖춘 이주민 지원기관과 단체들이 이런 혼돈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산국제교류재단과 함께 특히 '외국인주민 의료통역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던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가 방역부터 백신접종, 확진자 지원까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부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이주민 통번역 서비스가 비교적 원활하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그 성과일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교훈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각급 지자체 차원에서도 점차 다국어 정보제공의 폭이 넓어졌다. 그런데 여러 기관에서 정보를 생성하고 개별적으로 정보를 게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통번역 역량의 비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정보 간 충돌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주민들은 자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대응해 부산시는 이주민 인플루언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이주민에게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부산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이주민들이 SNS 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나 그릇된

정보를 걸러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첫째, 정확한 정보를 생성해 신속하게 배포하며, 체계적으로 검색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무엇보다 공신력 있는 다국어 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다국어 플랫폼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감염병 관련 일반 정보와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지원, 출입국 정책과 같은 정보는 중앙정부 플랫폼이 정보 생성과 배포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달랐고 그에 따라 대응 지침도 달랐다. 지원 정책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역학조사나 격리와 확진자 치료 과정에서 의사소통 등은 일대일의 밀접한 통역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은 지자체 차원에서 플랫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인력을 통해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에는 매우 다양한 언어권의 이주민들이 체류하고 있고, 한국어와 현지 언어 둘 다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때도 있었다. 그러나 장기체류자가 늘어나고 이주민 커뮤니티가 발전하면서 일상에서 의사소통 문제는 이주민 커뮤니티 내에서 상호 지원을 통해 해결되는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법정에서, 노동청에서, 출입국사무소에서 통번역은 해당 분야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여전히 체계적인 훈련이나 검증절차 없이 단지 두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중요한 통번역을 맡김으로써 치명적 오류가 발생하거나, 통역인이 언어를 권력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통번역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통번역이 단지 이 언어를 저 언어로 옮기는 단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이나 정보는 한편에 이주민, 다른 한편에 의료진, 119 구급대원, 경찰, 주민센터 공무원 등등, 두 언어를 연결하는 다리의 양편에 있는 쌍방 모두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통역인이 관련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관련 조치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통번역 활동가의 인권 감수성도 중요하다. 같은 언어권 출신이라도 계급·계층이나 출신 민족이 다른데 이에 대한 편견이나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반감이 통번역에 영향을 미쳐 이주민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의료통역, 법원통역 등 전문적 지식뿐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정책과 정보, 인권 감수성까지 꾸준한 교육훈련을 통해 통번역 활동가를 양성해 온 링크의 활동은 모범적이다. 그만큼 이주민 지원활동을 하는 기관과 단체들 사이에서 링크 통번역 활동가들에 대한 신뢰 또한 높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원인에 비추어 보면 인류가 또 다른 신종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의 경험이 남긴 교훈을 잊지 않고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갖춘 통번역 인력에 기반을 둔 부산시 차원의 통번역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토론. 이주민 공공의료통역 제도화를 위한
부산시 과제**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 활동성을 유지하는 것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

1. 모두가 공감하는 필요성

발제에 언급된 성과들과 같이 링크가 걸어온 그간의 노고와 의료통번역사업이 부산에서 정착해온 과정은 사회안전망을 조금 더 두텁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통번역사업의 필요성은 COVID-19 팬데믹 상황과 같이 정보전달이 중요한 상황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했다. 사업의 필요성과 나아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언급된 통번역센터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센터가 설립되는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한다. 이용현황에서 드러나듯 주 이용병원인 부산의료원 및 부산대학병원에 설치하여 의료기관의 산하로 둘 것인가, 부산시의회의 위탁동의안을 상정해 민간위탁으로 진행할 것인가와 같은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겠다.

의료기관에 설치되는 것은 통번역활동가의 처우와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으나 병원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느냐의 문제가 뒤따른다. 사업장의 의견을 따르기 위해 활동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생길수도 있다. 지난 2018년 요코하마 동부병원에 방문했을 때 통번역활동가 등 사회사업실의 활동가들이 원무과의 행정 잡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명확한 공공의 업무가 되지만 그만큼 활동의 가치는 오염될 수 있겠다.

민간위탁을 진행할 경우 부산시의회의 동의안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먼저는 센터 설치에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외국인주민지원조례의 개정을 예시로 든다면 입법 활동을 누가할 것인가의 숙제가 남게 된다. 현재 부산시의회의 어떤 의원과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발안제를 통해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진행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수탁기관 공개모집이 되고나면 누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가 남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링크가 타 법인과의 경쟁 우위를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의 숙

제가 냉정하게 남아있다. 정책요구를 넘어 대안 실행까지 가려면 그를 위한 행정력이 분명히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성과를 공유하되 이를 위한 냉정한 평가를 준비해 보는 것도 제안을 드린다.

2. 잃지 말아야 할...

결국 통번역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큰 맥락에서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목표와 함께 흘러가고 있다.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통번역은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고 처방 및 복용을 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서비스이지만 병원까지 가는 것 그리고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의 전후 과정은 분명한 활동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니 만큼 의료비, 간병비 등과도 직결된다.

통번역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위치에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의료지원 사업과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사회사업실의 업무처럼 사회공헌 등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일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세부적인 상황들이 한계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지향점이 그렇다는 의미이다.

전달체계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센터로서의 기능으로 본다면 통번역활동가를 어떻게 양성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의 부산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과의 사업체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은 필요해보인다. 그리고 단순 양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일종의 보수교육과 같이 통번역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장치 또한 마련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맺으며...

결국 거꾸로 흘러가면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통번역서비스는 매개가 되고 중심기관이 통번역센터가 되는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순 일자리나 서비스에 그치지 않는 활동성이 링크가 통번역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통번역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논의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는 거꾸로 활동성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 부족하지만 조심히 의견을 드려본다.

메모

메모

메모

